

## 칭다오(靑島), 맥주 축제와 요리천국



김지현 홍하성 (MBC 다큐멘터리제작)

### 칭다오(靑島)에 가다...

칭다오는 우리 나라의 인천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 산둥반도의 대도시.

거기서는 8월이 되면 맥주축제가 열린다.

맥주축제라면 독일이 유명하지만, 칭다오의 맥주 축제도 이젠 제법 유명하다.

칭다오의 맥주축제가 시작된 것은 1898년 독일이 칭다오 시를 점령하게 된 이후부터. 맥주가 없었던 중국에 독일인이 맥주 마시는 풍습을 들여오면서 칭다오에서 맥주가 생산됐다.

내가 칭다오 맥주를 처음 마시기 시작한 것은 중국에서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중국식당에서였다.

꽤 오래 전 일인데, 그때 맛을 본 칭다오 맥주는 유럽 본고장의 맥주 맛과 비교해도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독일사람이 맥주 제조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칭다오의 맥주축제가 열리는 맥주 성으로 갔다. 맥주 성은 칭다오 맥주를 홍보하기 위해 칭다오시가 만든 맥주 홍보관.

마치 우리 나라의 어린이 대공원 같은 분위기가



독일교회와 남아있는 거리

중국의 디스코텍에 모여 춤을 추는 젊은이들

다. 시원하게 물줄기가 쏟아 올려지고 있는 분수 터널을 지나치면 각종 놀이기구가 나오고, 그곳의 대 연회장에서는 수 천명의 중국인이 모여 맥주 시음회를 즐기고 있다.

1천cc짜리 플라스틱으로 만든 맥주조끼를 놓고 잔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사람들.

거기서는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마신 맥주조끼 쌓기 대회 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로 11년째 열리고 있는 맥주축제는 해마다 2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모여들었다.

가족단위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맥주를 즐기는 관광객들.

###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칭다오 시 의사관공실의 마원배 주임에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런 자본주의 행사를 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의 말이 걸작이다.

‘먹고 마시고 써라 그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마 주임은 우리 나라로 치자면 시청의 국장급 정도 되는 고위 공무원. 공산당의 고위공무원이 하는 말 치고는 과격적이다. 먹고 마시고 쓰는 걸 장려하는 것은 자본주의 적 발상이다.

공산당이 그런 말을 하더니.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인들은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개방한지 불과 10여 년.

그 사이 중국은 놀라운 정도로 변모했다.

칭다오 시만 해도 예전의 꾸질꾸질한 중국의 도시가 아니다. 시내에는 20층 짜리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거리에는 휴지조각 하나 날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깔끔하다.

계다가 건물의 외관도 디자인도 놀랍도록 세련되어 있다. 내가 잠을 잤던 칭다오의 호텔들도 유럽 호텔 수준이다.

중국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은 아마 한국 사람들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변화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

이미 중국은 생산성 면에서 한국을 앞질렀다는 보고가 나왔고, 2005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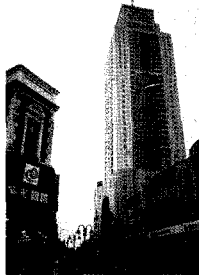
에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술

이 위태로울 만큼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9인치 칼라

텔레비전을 20만원 수준이



▲칭다오 시 변화기의 고층빌딩 화장실

###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전문위원

—MBC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저서: '일본뒷골목 옛보기', '프랑스 뒷골목 이야기', '지구촌 뒷골목 음식 한 그릇'

—소설: '카리스마 vs 카리스마'

—소설: '외인부대원 꼬레앙'



칭다오 시에는 독일풍의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면 살 수 있다.  
 품질도 한국의 것과 거의 같다. 왜냐하면 그 칼라 텔레비전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 바로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 현지공장들이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러한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에 가전제품 생산회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강가, 장흥, 해신, 해칭 등 이른바 중국의 4대 가전회사들도 우리 나라의 대기업과 같이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DVD 등을 생산해내고 있다. 품질에도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값이 우리 나라 것보다 2~30%더 싸다.  
 한국기업의 가전제품은 중국에서 낱알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요즘 중국 신혼부부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혼수품 1위는 DVD이다.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은 물론 기본이다. 누가 중국을 못산다고 했는가.  
 누가 중국을 더럽다고 했는가. 한국은 정말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된다.

**맥주축제의 하이라이트..**

맥주축제에서 칭다오 맥주를 한잔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칭다오 맥주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가수들의 공연이었다. 1회 출연료가 한국 돈 5천만원 아라는 중국최고의 글래머 여가수 이 민(李旻)이 등장하고 한국의 5인조 인기그룹인 베이비 복스도 공연에 참가했다.

베이비 복스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베이비 복스가 등장하자 오줌을 쌀 듯이 좋아했다. 이른바 한류(韓流)의 바람이 중국대륙을 강타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반면에 일본에서 초청되어 온 가수는 별 인기를 끌지 못했다. 확실히 한국과 중국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맥주 성에서 나와 칭다오에서 가장 좋은 디스코텍인 '바나나'에 갔다.  
 디스코텍인 바나나의 분위기는 한국의 압구정동 수준. 칭다오의 멋쟁이들이 모두 모여 최신 유행인 '도리도리' 춤을 추고 있다.  
 게다가 음악도 중국의 최신음악, 한국의 최신가요, 심지어는 일본의 최신가요까지 나오고 있다. 거기에 몸을 맡기고 신나게 춤을 추는 중국의 젊은 남녀들.  
 이제 한국과 일본, 중국은 확실한 동시패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일본 동경의 하리주쿠(原宿)거리가 한때 아시아 3국의 유행을 선도했는데, 이전 그것도 거의 무너졌다.  
 하리주쿠와 서울 압구정동, 중국의 대도시는 동시패션의 시대가 된 것이다.  
 실제로 바나나 디스코텍에서 춤을 추는 중국 젊은이들의 복장과 헤어 스타일만 가지고는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이다.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중국의 상위 5천만 명, 아니 1억은 적어도 우리 보다 소득이 높다.  
벤츠나 볼보를 거뜬히 타고 다닌다. 중국은 한국의 무서운 상대로 떠올랐다.  
나는 틈만 나면 중국을 주시해야한다는 말을 여러 해전부터 말해왔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올림픽을 중국은 유치했다.  
2008이 되면 중국은 적어도 상위 20%의 인구, 즉

2억8천만 명의 소득은 한국을 앞질러 갈 것이다.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들에게 팔 수 있는 물건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의 상해나 중경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이다.  
중경은 인구 2800만, 상해는 인구가 2400만 명이다. 공식통계에는 상해의 인구가 1600만 명으로



▲칭다오 시 제1 해수욕장의 중국인들



▲칭다오 시 제1 해수욕장의 인파 하루에 약 20~30만명이 몰려 든다.



▲중국음식 상차림(삶은 소라, 삶은 새우 등...) 칭다오 시는 바닷가여서 해산물 요리가 많다.

발표되었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중국인은 없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 거대 시장에 뛰어 들어 피나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세금우대 등 특별대접을 받으면서 커 나가고 있는 중국기업과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고 있는 한국의 삼성, LG, 등 현지기업들.  
현지기업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만나 보면 정말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중국인들은 새벽2시까지도 해수욕을 즐긴다. 우리와는 다른 풍습이다.  
제1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해변가의 2층 식당 (21세기중심반점)에 들어갔다.  
칭다오의 명물 요리를 주문했다. 바닷가여서 해산물이 많다. 일행이 7명이어서 삶은 왕새우, 오징어, 무침, 소고기튀김, 마파두부 등 모두 10접시를 먹었다.

그리고 칭다오 맥주를 마셨다. 안주10접시에 맥주 5병, 고량주 1병을 마셨는데, 음식값은 총 4만 원이 나왔다.  
과연 요리의 천국이다. 한국 같으면 얼마나 나올까. 상상하기 싫다.  
배부르게 먹고 나니, 그만 오줌보가 당긴다. 칭다오 맥주 때문이다.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뵐새! 중국은 중국이었다. 물이 질판한 화장실 바닥 때문에 바지자락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변기를 보니 두 번 오기 싫다.  
우리는 천국인데, 화장실은 지옥이다. **홍기호**

### 요리의 천국과 화장실의 지옥인 중국

칭다오를 그렇게 돌아 다녔다.  
저녁. 중국 제1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칭다오 시의 제1해수욕장으로 갔다.  
밤인데도 네온사인을 켜놓고 바다에 수천 명의 해수욕객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다.



◀칭다오 시 21세기 중심반점의 화장실 그러나 화장실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